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10월의 남자

심 윤 경
소설가

10여년 전 겨울, 친구들과 여행가자고 꺼냈던 이야기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서, 우리는 갑자기 중국 하얼빈행 비행기를 탔다. 대륙의 작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영하 25도의 찡한 추위보다 먼저 닥쳐온 것은 도시를 온통 뒤덮은 매캐한 석탄 냄새였다. 오리털 의복으로 중무장한 탓에 정작 피부에 닿는 추위는 그리 심하지 않았는데 그 석탄 냄새가 북방의 추위를 더 상징적으로 느끼게 했다.

하얼빈 기차역은 현대적으로 새로 지어졌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쏘았던 구 역사는 문화재로 보존되어 있었다. 유리창을 통해 오래된 플랫폼을 볼 수 있었는데 안중근 의사와 이토 히로부미가 서있던 자리가 5미터 내외, 겨우 승용차 한 대 정도랄까, 거리라기보다 간격이라고 해야할만큼 너무나 가까웠던 것에 가장 놀랐다.

안중근은 세 발의 총알로 이토를 쓰러뜨린 후 "코레아 후라"를 외치고 체포되었다. 심문조사에서 그는 자신이 포수로 살아왔으므로 상박을 겨누면 흉곽을 뚫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어린 시절부터 산과 들을 누비며 짐승을 잡아왔던 청년 안중근, 사냥 기술자로서의 노련함이 보이는 그 진술이 나는 매우 인상깊었다.

스스로 배우지 못한 포수라고 칭한 것과는 달리, 이토 히로부미를 쏜 이유를 말하라는 심문관의 요구에 첫째, 조선의 왕후를 살해한 것 둘째, 한국에 불평등한 을사 5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것으로 시작해 무려 열다섯 가지의 이유를 막힘없이 서술한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는 것 이상으로 이 심문에 대한 답변을 중요하게 여겼고 철저하게 준비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안중근이 시종일관 강조했던 것 하나는 그가 개인이 아닌 대한의군 중대장의 자격으로 이토를 쏘았다는 점이었다. 하얼빈역에서 일어난 일이 테러리스트의 저격이나 심지어 애국지사의 의거조차 아니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일부인 것을 그는 분명히 하고자 했다.

그것은 전쟁이 맞았다. 총 한자루를 품에 넣고 하얼빈으로 가기 전, 대한의군 참모중장이라는 직책으로 무장독립 투쟁에 투신했다. 400여명 규모의 의병대를 이끌고 연해주에서 두만강을 건너 국내 진공작전을 벌이다 1908년 7월 결국 일본군에 의해 궤멸적 타격을 입고 흩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영산 전투였다. 영산 전투의 패퇴 이전까지 부대는 승전을 거듭하고 있었으나 안중근은 생포한 일본군 포로들을 국제법에 의거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석방된 포로들은 당연하게도 일본군에 부대의 위치를 밀고했다.

그의 고집스러운 원칙주의는 수백명 동지들의 목숨을 대가로 요구했고 불신과 비난에 시달려 고립되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후회에 시달렸으나 죽을 때까지 원칙주의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하얼빈 역에서 외친 '코레아 후라'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러시아어가 아니라 세계 언어인 에스페란토어였다. 그는 자신이 이토를 쏘는 일이 개인의 원한이 아니요 동아시아의 분쟁도 아닌 세계의 정의와 국가간의 존중에 관한 일임을 명확하게 인식했고 세상을 향해 일관되게 주장했으며 그것을 준비하고 표현하기에 철저함을 다했다. 안중근의 서른 해 짧은 생애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원칙주의였다.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과 테러의 불길한 연기가 이어지고 있다. 죄없는 민간인,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희생되고 마는 참혹한 현실에 고개를 돌리려하면, 어느 쪽이 더 수준이 낮고 양심이 없는지 경쟁이라도 하려는 것 같은 졸렬한 국내 정치의 면면에 더욱 할말을 잃고 만다. 다만 시월의 하늘만은 차갑고 푸르고 맑았다. 가을의 구름 없이 푸른 하늘을 이고 있는 남산 자락에 안중근기념관이 있다. 1909년 10월 26일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은 이미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흉곽을 쏘았다. 세계 언어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저항 없이 체포되어 이토 히로부미의 죄상 15조를 지목하고 항소하지 않은 채 처형된 그의 행적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도 남음이 있으나 오늘 우리 모습은 그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 안중근기념관에서, 10월의 남자 안중근의 꼿꼿한 원칙주의를 그리워했다.

종교칼럼

당신도 누군가에겐 스치고 지나간 인연이다

중 현
광주 증심사 주지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조용필 '바람의 노래' 중)

시내에서 불교아카데미 강의를 마치고 밤 9시가 훨씬 넘어 절로 돌아왔다. 텅 빈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미리 예약이라도 한 듯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은 만사가 귀찮은 사람처럼, 주차장 중간쯤에서 주저앉았다. 조명이 비추는 텅 빈 주차장을 바라본다. 자동차 조명만한 크기로 오도마니 웅크리고 앉은 주차장은 누군가의 지친 뒷모습 같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디로 가는가?" 노래는 내게 묻는다. 그러게! 그 많고도 많던 인연들과 가슴 시린 그리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또 무슨 인연으로 나는 창백한 자동차 조명을 부추겨 주차장을 다독이고 있을까?

인연은 어느 날 문득 내게로 와서 함께 하다가 훌쩍 떠나 버린다. 나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인연이 나를 스치고 지나간다. 인연을 실은 세월만 무심하게 흘러간다. 우리는 이렇게 숙명적으로 인연을 맞고 또 이별하며 살아간다. '인연 따라 산다'는 말은 인연이 담고 있는 운명적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모두 '나'이기 때문에 '나'를 스쳐 지나간 인연들과 그리움들로 가슴 아파한다. '나'는 늦은 밤, 라디오를 들으며 '너'와 함께 했던 숱한 인연들과, 숱한 '너'들이 남기고 간 빈 자리를 온몸으로 느낀다. 이삿짐이 모두 빠져나간 빈 방을 바라보듯, '나'의 마음은 황망하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너'이기도 하다. '너'인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겐 스치고 지나간 인연이다. '너'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존재여서 이 세상에 살다 간 흔적이라도 남겨두려 발버둥친다. '너'에게 숱한 '나'들은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산기슭의 하이에나에 불과할 뿐이다.

'너'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 정상의 표범이고 싶어한다. 그러나 또한 '너'는 알고 있다. 그런 보잘것 없는 '나'들이 나무처럼 굳건하게 삶의 현장을 지키며 소중한 사람들과 소소한 행복을 꾸려가고 있음을.

'너'가 그렇게도 애쓰는 삶의 흔적이 '나'에게는 상처 뿐인 기억 혹은 사무치는 그리움이다. '나'가 바라보는 '너'는 그리움만을 선사하곤 훌쩍 떠나버리는 무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쩌면 '나'라는 존재는 인연이란 두 글자 안에 녹아들어간 숱한 것들 중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다. '나' 역시 스치고 간 숱한 인연들 하나 하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그저 '인연'이라는 두 글자가 선사하는 쓸쓸함에 잠시 취할 뿐이다.

우리들이 쌓아가는 것은 추억, 감성, 별리의 회한 같은 것들이다. '나'는 '너'를 그리워하고, '너'는 '나'를 흠모한다. 그것을 뭐라 부르건 결국은 정(情)이다. '나'가 '너'에 대하여, '너'가 '나'에 대하여 차곡 차곡 켜켜이 쌓은 정이다.

우리 모두는 '나'와 '너'이기 이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이다. 복잡한 인연의 고리가 얽히고 설켜 누가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실타래처럼 뒤엉켜 살고 있다. 우리는 '나'이기도 하고 '너'이기도 하다. 내가 없다면 너도 없고, 네가 없다면 나도 없다. 애초부터 나와 너는 '우리' 안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그래서 너와 나 모두에게 실패와 고뇌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진다.

우뚝 선 고목이 들려주는 바람의 노래. 그리고 또 어딘가에서 '쿵'하며 꽃이 지고 있다. 가끔 우주를 상상하노라면 지금의 삶이 숭고해진다. 이 우주 속에서는 '나'도 없고 '너'도 없다. 오직 숱한 인(因)과 연(緣)이 뒤엉켜 거대하게 흘러갈 뿐이다.

지식이 하나 하나 쌓아가는 것이라면, 지혜는 쌓은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살아가는 것은 방법 만으로도 충분하다. 삶의 목적이나 존재 이유 같은 것들은 오히려 짐만 될 뿐이다. 삶은 여행이다. 그것도 시작도 끝도 없는 여행. 돌아갈 곳도 없고, 종착지도 없는 여행이다. 짐이 많을 수록 여행길은 괴로운 법이다.

가을이 온다. 귀기울여 바람의 노래를 들어보라.

기 고

동요 작사가가 된 주민들

서 향 숙
아동문학가

감자, 떡볶이, 라면, 물고기가 되었어요, 왕우산, 빛나고 빛나라….

최근 발간된 동요집 '나도 작사가'에 실린 곡들이다. 이 곡을 만든 사람들은 평범한 주민들이다. 지금까지 동요 가사를 써본 적이 없는 주민들은 동심으로 돌아가 다양한 소재로 동요를 만들었다.

필자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광주 동구청 평생교육원에서 '나도 동요 작사가'라는 강의를 맡아 주민들을 지도했다. 평생교육원에서 재미있게 진행된 강의에 익숙했던 주민들에게 처음 개설된 동요 작사는 낯선 것이었다. 담당자에 따르면 댄스 강의 등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처음 개설된 동요 강좌는 강의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 참여자 모집부터 힘들었다고 한다.

처음 10주간 20시간에 걸친 강의를 부탁받았을 때 흔쾌히 수락했다. 아이들을 위한 글을 쓰며 10여 년간 동요의 작사를 해 왔기에 덜컥 강의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 동안 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왔고 광주교육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에게 아동문학 강의를 해 온 터라 잘 할 수 있으리라는 섣부른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강의를 수락한 일을 얼마나 후회한지 모른다. 전국적으로 처음 개설된 강의이기에 강의 자료가 없어서 두 달 동안 강의할 내용을 준비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들었다.

특히 동구 주민인 참여자들은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동요 작사 창작법을 배우는 걸 퍽 힘들어했다. 결국 결석이 잦은 학생 두 명은 탈락시킬 수밖에 없었다. 필자 역시 그간 학생들을 오랜 기간 가르쳐왔지만 백지 상태인 주민 학생들에게 동요 작사 쓰기법을 지도해 10주 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했기에 스트레스를 무척 받았다.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흥미로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심을 많이 했다.

동요는 '어린이의 노래'라는 뜻이 있기에 어린이들에게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동요는 형식, 내용에서도 동시와 달라야 한다. 동요 창작에서는 내용, 분절, 대구는 꼭 지켜야 한다. 동요의 내용적 성격은 노래에 가깝고, 즐거움을 담고, 동적이고, 내용이 밖으로 발산되어야 한다.

첫째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잘 써진 동요 작사의 예를 들어가며 동요 작사 창작법에 관한 이론 강의를 했다. 이어 지금껏 사랑받는 동요 작사들을 모아서 프린트해 나눠주고 대형 스크린에서 나오는 동영상 동요에 맞춰 학생들이 부르게 했다. 또 필자가 오랜 시간 작사한 많은 동요 곡들을 유튜브에서 다운받아 작사의 창작법에 따라 강조하는 점을 살펴보고 함께 동요를 부르며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처음엔 강의를 듣는 자체도 힘들어 했던 학생들은 점차 수업에 재미를 느끼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내심 기특한 생각이 들었다. 또한 5주째부터는 제목을 주고 직접 가사 한 편을 써 보게 하고 합평수업을 진행했다. 마지막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잘된 점을 칭찬해주니 학생들의 실력이 급진적으로 향상되어 갔다. 수업 때마다 자유 제목으로도 숙제를 내 주며 동시 작사 한 편씩을 써 오게 했다.

학생들이 제출한 작사 중에서 최종 3편의 동요 작사를 뽑고 계속 칭찬을 하며 다시 고쳐 써 보게 했다. 6명의 학생이 낸 동요 작사 18편 중에서 황성호 작곡가가 1편씩을 골라 멋지게 작곡을 해 주었다.

모두가 함께 어렵게 제작한 '나도 작사가' 책자를 받아드니 그간의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이 커다란 선물로 보상받은 느낌이 들었다. 고생하며 강의를 듣고 '동요 작사가'가 된 김은희, 김초은, 백은희, 윤삼현, 김남숙, 배은정 님께도 축하드린다. 곧 주민들이 만든 멋진 동요 곡들이 음원으로 유튜브에 실려서 어린이와 어른들도 동요를 부를 거라고 생각하니 기대감이 크다.

각박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밝은 동요를 많이 부르게 되면 이 사회가 더욱 희망차고 명랑하게 변화되리라고 믿고 있다.

동구 평생교육원뿐만 아니라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평생교육원에도 동요 작사가 과정이 개설돼 광주 시민들이 작사한 동요가 음원으로 제작되고 많이 불리워지길 희망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밝은 빛처럼 퍼져나가 많은 국민들이 동요 작사를 하고 작곡된 동요가 불리워지는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社 說

동구청의 별관 절개 결정 공익사업 모델 삼아야

광주 동구청이 도로 확장을 위해 구청 별관 청사(이하 별관동) 일부를 헐기로 결정했다. 상습 정체 구간인 동구청에서 조선대사거리 구간 도로를 확장하는데 구청 별관이 장애가 되자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것이다.

동구청 별관동은 연면적 6500여㎡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이 가운데 도로 쪽 건물 측면 2개 호실 분량(7.5m 가량) 1~4층(연면적 756m)을 잘라내기로 했다. 별관동 철거 작업은 오는 12월 27일 시작해 25일 가량 진행할 예정이다. 1976년 지어진 별관동은 옛 전남공고 교실로 쓰이다 1996년부터 동구가 청사 별관으로 이용하고 있다. 47년 된 건물이지만 정밀 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B등급(양호)을 받을 정도로 구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별관 일부를 절개 방식으로 철거하기로 한 것은 광주시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동구청~조선대사거리간 확장공사에 호응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상습 정체구간(375m)인 폭 20m의 4차로를 폭 30m의 가변형 5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최근 착공 신고를 마쳤다. 인근 노후 건축물 17개 동에 대한 철거 사전작업도 시작했다.

난관은 16개 부서 282명이 근무하는 동구청 별관동을 어떻게 할것인가 였는데 동구청이 불편을 감수하고 별관동 뒤편에 부속건물을 지어 옮기기로 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동구청의 별관 절개 결정은 공익사업을 위해 과감하게 양보하는 선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 하다. 우리사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알박기'로 사업에 차질을 주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 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는데도 보상을 더 받기 위해 마지막까지 버티는 볼썽 사나운 모습을 흔하게 봐 왔다. 자치단체가 나서 이런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공익사업의 모델로 삼을만 하다.

2만명도 안되는 월 출생아, 해법이 안보인다

8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하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8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돈 것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더욱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인구 데드크로스'도 46개월째 계속돼 인구 절벽의 재앙이 눈앞에 다가왔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만 8984명으로 1년 전보다 2798명 줄었다. 이는 2020년 11월 3673명 감소한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특히 지난해 9월을 제외하면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도 2019년 11월부터 4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사망자 수는 3만 540명으로 지난해보다 500명(1.7%) 증가해 8월 인구는 1만 1556명 줄었다. 출산율과 상관 관계가 있는 8월 혼인 건수는 1만 461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08건 감소했다.

저출산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을 경우 2020년 632만 명이던 0~14세 유소년 인구가 2040년에는 318만 명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문제는 작금의 출산율을 끌어 올리는 근본적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문제 해결에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로 추락했다. 저출산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해법이 결여된 탁상행정의 결과다.

정부는 더 늦기전에 출산율 제고를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에 두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인구 감소는 고령화와 맞물려 성장 동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만큼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여 결혼과 출산 기피 풍조를 바꿔야 한다.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위한 총체적 혁신이 필요한 때다.

無 等 鼓

뇌졸중과 뇌졸증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 명칭은 한문(한의학 용어)이나 영어에서 따 온 것으로, 그 이름만 들어도 질환의 부위와 속성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름을 헷갈려하는 질환이 있다.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腦卒中)인데, 뇌졸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인터넷 정보나 기사 등에도 뇌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이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같이 의학용어에 통증이나 증상을 뜻하는 '증(症)'자가 붙는 경우가 다반사인 까닭에 뇌졸중이 아닌 뇌졸증으로 지레 짐작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일상에서 접하는 병명 가운데 '중(中)'자로 끝나는 것은 뇌졸중이 유일하다. 이름 자체가 평범하지 않은 만큼 어원에 대해서도 왈가왈부가 있다. 뇌졸중에서 '졸(卒)'은 '죽었다', '중(中)'은 '맞았다'라는 뜻으로 뇌가 다쳐 죽은 상태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한의학적으로는 '바람을 맞아 쓰러졌다'는 의미로 흔히 중풍(中風)이라 부르기도 한다.

용어에 대한 뜻 풀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뇌졸중은 뇌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상태, 즉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통틀어서 말한다. 뇌졸중은 연간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국내 사망 원인 4위의 질환이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초고령사회인 전남에선 발병 환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대한뇌졸중학회는 예방 캠페인을 통해 "뇌졸중 증상이 느껴지면 골든타임인 3시간 내에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치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특히 평소 뇌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우려가 되는 사람들은 뇌졸중 전조증상을 인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증상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웃-손-발-시선' 체크법을 제시했다. 즉 '이~'하고 웃을 수 있는지, 두 손을 앞으로 뻗을 수 있는지, 발음이 명확한지,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는지 등 네 가지 행동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채희종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전 남 본 부 220-068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